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정말 여러분들,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까. 대답해야지 온 세계의 여러분들,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계 각 나라의 모두가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자고 사람이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주님께 설교를 들을 때는 “애야 사람이 목적을 놓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면서 그 목적을 못 이룬 사람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저 창피한 일을 당하고 하면서 그 목적을 이룬 것과 어떤 사람이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사는데 그저 편하게 살다가 못 이루는 것과 창피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이룬 것, 어느 편이 낫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고생을 해도 그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고생하며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이 운명을 좌우시키는데, 편안하게 사는 것도 그 목적 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알겠죠.

세계 각 나라가 다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자들 그

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받으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냥 그러저럭 살다가 그 목적을 안 이루는 것보다 낫지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본도, 타이완도, 말레이시아도, 그리고 저 독일 사람들도, 캐나다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좀 힘들지만 목적을 이루기 원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들오 봐요. 허리를 펴요.

목적은 목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뭘 전할 것인가 하며 요즘 영계 이야기를 계속하니 영적인 말씀인가 했는데 “목적은 목적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주제만 알고 와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 사는 목적이 뭐냐?” 하고 물을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뜻을 위한 삶입니다. 뜻을 위한 지구상의 역사입니다.

그쵸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평생동안 자기 딸을 두고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창피 당하고 했던 것은 잠깐의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창피도 아닙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여인이여,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물을 쥐서 물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물인데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그 물을 줄 테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에게도 같이 주겠다.”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뿐이지 다섯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이 뜨끔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바빠요. 가겠습니다. 잘 있다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다 했을 때 뜨끔하고 창피를 당했지만 본문의 시돈 땅의 여자처럼 “웁소이다.” 하고 시인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어찌면 나를 그렇게 뜨끔하도록 압니까.”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쪽집개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였으므로 좀 아쉽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듣는다 하고 우리들은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듣는다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속시원하게 이야기 해준다는 말이 지금 생각납니다. 너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이야기 해준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는 언제 오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진지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바로 깊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깊이 안 들어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들어도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시대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여자야! 내가 그로다.”

이 여자는 끝까지 계속 창피를 주고 죄를 지적하고 했어도 계속 그 쪽 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말하는 그가 나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에 여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 메시아!!”

그리고 바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동네에 가서 “나 오늘 메시아를 봤다. 지금 봤다. 우물가에 있다.” 이러며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동네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밤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첫날은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메시아가 맞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 만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여자가 깨달듯이 이 마을 사람들도 그 만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정도의 말씀으로 인생에 대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메시아가 맞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먹으려면, 다 따르라!”

버리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따르라!” 했습니다. 안 따르면 본인들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거기 죽 따라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아람의 군대장관인데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때려부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

다.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창피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가 한번은 북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군사들이 거기의 계집아이를 잡아왔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심부름하고 그 아내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작은 계집아이에게 내가 우리 남편이 아파서 고민이 많다 했더니만 우리 이스라엘에는 병 고치는 사람 엘리사가 있다, 그가 손을 대면 병이 고쳐진다, 그가 기도하면 낫는다 하더라.”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라에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해봐라. 당신은 세상만사를 흔들잖아. 왕도 당신이 이야기하면 듣지 않느냐.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 쪽 왕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 한번 해봐라.”

그렇게 다리를 놓게 되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군대 장관이고 뭐이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북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장군이 거기 가는데,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 손을 벌리러 가는데 어떻냐.” 하니까 “좋다. 우리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 어린아이의 그 소스를 듣고 나아만이 그 나라

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따라 갔던 사람이 선지자에게 갔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장군이 그렇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씻고 가면 낫는다.” 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전했습니다.

“장군이여.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일곱 번 하십시오. 그러면 낫는답니다.”

“참! 웃기네 정말. 이게 뭘 일이냐. 내가 도깨비한테 홀렸냐, 뒤통수에 꼬였냐. 무슨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야 그냥 가자! 세상에 자기네 나라를 쳐 없애고 흔들 어대는 장군이 왔으면 들어오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 했습니다. 사실 자기 병이 너무 추접한 병이기도 하지만 너무 창피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자.” 했는데 그 장군을 모시고 온 그 밑의 사람들이 “장군이여,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병만 나으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런 것을 따집니까. 병이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나으면 말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이 목적이니까. 우리의 목적이 뭘니까. 병 낫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 가서 앉았다가 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점심 먹고 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대접받고 오는 것이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렇다마는... 내 입장이 또 다르지... 요단강이 어디께 가면 있냐.”

“조금 가면 있습니다. 저기 흘러오는 것이 요단강입니

다.”

그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가서 한번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야 어디 이게 나왔냐? 그냥 있지.”

“일곱 번이라 했습니다. 여섯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칠분의 이는 나왔을 것이 아니냐. 두 번 했으니까..”

“아이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무조건 일곱 번 하라 했으니 일곱 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내가 정말 더러운 병에 걸려서 창피를 다 떤다.” 하고서 들어갔다 또 나왔습니다. 세 번해도 네 번 해도 다섯 번 해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의심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 했어도 안 나왔습니다.

“야 가자. 내가 아주 속고 가느니 조금 속고 가는 것이 낫겠다. 내 위신이 이게 뭐냐. 이런 창피가 어딴냐.” 그랬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번 남았어요. 한번 들어가면 돼요. 에이 우리가 장군을 끌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야, 내가 하지!” 하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싹 나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아 버렸습니다. 일곱 번을 했더니 나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때부터는 세상 편했습니다. 목적이 병이 낫는 것인데 병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 하겠어요

<기 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두고 두고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게 축복해주시고, 가정 개인 섭리사 민족 세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만 달성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기에 이렇게 해주었다, 그래야 앞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되는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되는구나 이것을 교훈도 하고, 뜻이 있으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에 이 시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 위에 모두 함께 하사 목적을 달성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삼위의 능력과 은혜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단상에 보기로 하고 아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그럼 할렐루야 네 빠이빠이 네

온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대의 자들, 목
적을 달성하면서 잘들 지내기 바랍니다.